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3-24)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피같은 물질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 주심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비상시국이고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을 가눌길 없습니다. 선교 편지 작성을 마치면 어디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0~8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시기, 대부분의 교회에서 연중행사로 시행되던 여름성경학교와 문학의 밤, 새벽송, 성탄 축하 발표회 등 꿈같이 아늑한 추억을 간직한 세대로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다음 세대의 급격한 몰락과 함께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가슴 한 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조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급격한 변화의 회오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 주요 언론과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 약 30%에 달하는 출석을 감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학원선교, 직장선교도 크게 위축되어 있고 황금 어장이라 불리던 군 선교 현장도 심각할 정도로 영적, 환경적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히 달라진 병영문화는 군 선교에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으로는 1) 일과 후 병사들에게 휴대폰 지급 및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과 휴식 보장, 2) 군대 내의 인권 신장 및 계급별 생활관(내무반) 생활, 3) 종교집회 참석 권유 및 강요 금지, 4) 병사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탈 종교화 현상,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한때 군인교회를 통해 한 해 20만

명씩 세례를 받던 인원이 코로나 기간, 2만 명까지 내려갔고 2021년에는 1만 9000여 명까지 급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세례교인 목표를 4만 명으로 정하고 총력 질주 결의를 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벽찬 목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저희 은성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 출석률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 병력의 25%~3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선교를 하는 주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반적으로 군인교회들의 예배 출석률은 20%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 복음화율이 3%를 넘지 못한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괄목할 만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군 선교에 관심을 갖고 총력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군 선교를 하고 있는 제가 느끼기에 군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인 군 선교는 전반적으로 방치되고 외면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투잡을 하며 군 선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중단 없이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아내의 눈물겨운 희생과 더불어 피 같은 물질과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었던 많은 손길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생각하면 저는 언제나 부끄럽고 죄인 된 심정입니다.

19년 전, 저의 군 선교 초기 시절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함께해 주었던 어울림 선교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 시절 군 선교에 뜻을 품고 10여 명의 청년들이 의기투합하여 매 주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오후 예배를 군 형제들과 함께 하며 간식으로, 말씀 나눔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동참해 주었던 그들, 결혼 후에는 배우자들과 자녀들까지 동반하여 군 선교에 헌신해 주었던 그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 치밀어 오르는 벽찬 감동과 감격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8년 전부터는 군 선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기투합? 한 지역 교회 어머니 선교단이라는 모임에 속한 분들(15명 내외)이 한 달에 한 번씩 은성교회를 방문하여 간식을 나누며 그룹별로 말씀 포럼과 교제 등으로 장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 같은 병사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병사들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성교회는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현재 전 병력의 25~30%에 이르는 출석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군인교회에서는 매우 희귀하고 감사한 일이며 그런 면에서 은성교회는 매우 행복한 교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영적 최전방 같은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간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복음 증거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들을 통하여 친히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또한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19년 동안의 사역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 주셔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물질, 인적 자원으로 섬기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군인교회는 온전히 자비량 목회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초심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자립하기가 힘이 드는 군인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약한 인간인지라 수시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장애물이 되어 낙심과 실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군 선교의 의인들을 통하여 도와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의 비율이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청년들이 밀집돼 있는 군 선교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조국 교회의 미래를 걸고 전략을 세우고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교회 마지막 선교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군 선교에서 인적 자원과 물질 자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밀집돼 있는 선교지 한 모퉁이에서 이뤄지는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4. 12. 18

은성교회, 권오철 목사 드림